

# “착한소비 · ESG 투자 늘려야”

### 전주시, '제3차 ESG 민관협력 정책 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잘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착한소비'를 확대하고 ESG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9일 전주시지원봉사센터에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ESG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소비자와 개인 투자자, 생활 속 실천 관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ESG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전주시지원봉사센터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황성진 쏘셀공작소 대표는 "돈줄, 흔 풀내며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ESG 시민"을 주제로 첫 번째자로 나섰다.

황 대표는 "ESG를 잘 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ESG에 투자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제품 구매 시 기업의 환경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통계를 나온 만큼 기업의 ESG 활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호주 모나시 금융학 교수를 역임했던 안혜옥 응용경제학 박사는 "행동하는 ESG 투자: 부의 기회, ESG에 투자하라"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안 박사는 "ESG 투자는 선택이 아니



전주시는 9일 전주시지원봉사센터에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ESG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라 필수로, 지구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높은 수익률과 사회의 공동가치, 지구살리기 연대를 최대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ESG 투자는 깨어있는 투자자들의 자기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난희 자원봉사 이음 부대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ESG 실천에 참여하고 공익조직은 ESG를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ESG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10월 제 1·2차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열고 ESG 실현을 위한 기업·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난 포럼에서 행정과 기업 부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시민 부문으로 시민들에게 더 와닿는 ESG 포럼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ESG 시민으로서 한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기업 등의 의사결정 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 전통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윤상 기자

#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무엇이든 가능한 미래로! 야호!

### 전주시, '야호교육 전주 비전 선포식·국제포럼' 개최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무엇이든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야호교육 비전이 선포됐다.

전주시는 9일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기관 교사, 전환교육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교육 전주 비전 선포식 및 국제포럼'을 열고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1부에서는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무엇이든 가능한 미래

로! 야호!'라는 야호교육 비전이 선포됐으며, △스스로 찾기(꿈이 커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야호교육 비전) △스스로 찾기(꿈이 커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야호교육 비전) △스스로 찾기(꿈이 커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야호교육 비전) △스스로 찾기(꿈이 커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야호교육 비전) 등 4대 추진전략을 비롯한 15개 추진과제가 소개됐다.

야호교육비전과 야호교육비전,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에서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교육활동가 10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전주형 전환교육을 비롯한 국내·외 전환교육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국제포럼이 열렸다.

제리 제퍼슨 전 아일랜드 국립 메이누스대 교수는 '아일랜드 전환학년' 사례를 발표하면서 △시험 위주 가 아닌 학습 위주의 과정 △폭넓고 균형잡힌 교과과정 △학생들을 보다 독립적인 학습자로 육성 △학교 밖 기관과의 교류 △학교별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재량 보장 △다학문적 통합 학습 권장 등 전환학년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아름 연스 프리스클레회 국제 컨설턴트는 14~18세 사이의 학생들이 기초 초등교육을 마치기 위해 1~3년을 보내는 덴마크 가족학교인 '에프터스쿨레'에 대해 소개하면서 역사와 교육의 독창성, 학생들의 연대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사례로는 정병호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폴레 교무부장이 '한국형 에프터스쿨레 오디세이폴레'에 대해, 장경수 전주시 야호학교 교장은 야호학교 전환교육 '나를 찾는 아카데미'에 대해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당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이 나온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계획에 따라 18세 이상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급증하는 등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18~49세의 건강한 청장년층과 50대, 군인·경찰·소방 등 우선접종 지원군은 2차 접종을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추가접종을 맞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18~59세 중 기저질환자들

은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라면 2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 대상이다.

접종간격이 4~5개월인 대상자지만 해외출국, 질병치료, 단체접종 등으로 권고 접종간격보다 이른 시기에 접종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권장 접종간격보다 1개월 빨리 조기접종을 할 수 있다.

시는 접종편의를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예약과 실제 접종 간의 간격을 기존 2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특정된 요일에만 접종 가능했던 접종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원하는 요일에 언제든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사전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5개년 식량산업종합계획 승인

전주시가 5개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체계를 마련에 탄력을 가하게 됐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2~2026년 5개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시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7개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을 갖게 됐으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협 DSC(비 건조저장시설) 시설 지원 등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또 계획 승인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 공공비축미 배정, RPC(미곡종합처리장) 비 매입자금 추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김윤상 기자

## 완산도서관, '1인 1책' 시민 출판기념회 가져

### 출판·창작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 수필모음집·그림책 11권 출간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으로 탈바꿈한 완산도서관에서 출판·창작 프로그램 수강 시민들이 수필모음집과 그림책을 출간했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9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작자책 책 공작소 3층 자작마루에서 시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출판·창작 프로그램인 '전주는 모두 작가'에 참여한 수필쓰기반과 그림책창작반 수강생들이 11권의 책을 출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수필쓰기반의 경우 수강생 8명의 글이 수록된 수필모음집인 '함께 쓰는 기쁨'을 출간했으며, 그림책창작반에서는 △쑥쑥쑥(김형미) △미슐떡(송경

자) △집토끼(오유세라) △바동이(윤다정) △꽃파리(이희숙) △고백(정하영) △상고머리(주미라) △시! 비밀이야(최성자) △파랑사(표혜영) △하늘에서 툭 떨어진 오징어(한문숙) 등 10권의 그림책을 출간했다.

이중 쑥쑥쑥(김형미)과 꽃파리(이희숙)는 서점 판매용으로 1000부, 하늘에서 툭 떨어진 오징어(한문숙)는 500부가 정식 발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필쓰기반 수강생들은 16주 동안 김영 전북문인협회장의 지도로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나누며 글을 써왔다. 그림책창작반의 경우 박예분 전북아동문화회장의 지도로 아이디어 발굴, 주제와 소재 정하기, 스토리보드 만들기, 원화 그리기 등 세세하고 꼼꼼한 작업을 통해 그림책을 만들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완산도서관 자작자책 책 공작소는 책과 가까워진 시민들이 독서의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이라며 "시민 1인 1책 출판 프로젝트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서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